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구원, 세션 5, 선거, 역사적 정찰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로버트 피터슨 박사와 그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5, 선거, 역사적 정찰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강의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선택 교리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적 정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거스틴, 펠라기우스, 마틴 루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존 칼빈으로 넘어갑니다. 존 칼빈(1509~1564)은 멜랑히톤을 존경했지만, 루터교 개혁에서 루터의 후계자이자 뛰어난 그리스 교수였던 그를 기억하세요. 그는 리더십 면에서는 훌륭했지만, 어거스틴의 은혜와 예정론 교리를 희석시킨 사람으로 루터를 희석시켰습니다.

멜랑히톤은 루터의 은혜와 예정론을 희석했습니다. 칼빈은 1509년부터 1564년까지 멜랑히톤의 학문을 존경했고 그를 그리스도의 형제로 여겼지만, 그의 시너지즘에 이의를 제기하고 루터의 단독주의를 선호했습니다. 제네바의 개혁가인 칼빈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구축하기 위해 성경 해석에 헌신했습니다.

칼빈은 다면적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목사가 되었지만, 많은 사람에게 욕을 먹고 무시당하던 도시에서 오랜 세월 충실한 목사였습니다. 학문적 측면에서 그의 평생 활동은 체계적 신학 책인 기독교 종교 강요를 쓰는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27세의 젊은이로서 명성을 얻었고, 그 후로는 반복적인 개선과 확장을 거쳐 1564년에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의 확실한 이해를 우리에게 보여준 마지막 강요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과제는, 그는 매일 설교하고 가르치고 많은 목회 활동을 했지만, 그 다른 과제는 기관을 쓰고 개선하고 확장하는 것과 함께 그의 성경 주석이었습니다. 그는 요한 계시록을 제외한 신약의 모든 책을 썼는데, 요한 계시록은 그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인정했고, 중요하지 않은 요한 2서와 3서는 요한 1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대한 주석은, 그는 에제키엘서를 반쯤 읽고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약에 대한 완전한 주석 세트를 가졌을 것입니다.

제네바의 개혁가인 칼빈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구축하기 위해 성경 해석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강력한 선거 교리를 발전시켰습니다. 칼빈은 그의 유명한 기독교 강요에서 예정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명확한 교리에 따라, 우리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충고에 따라 하나님께서 구원에 받아들일 사람과 멸망에 정죄할 사람을 한 번에 결정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기관, 3권, 21장, 7절. 반대자들은 선거와 자유의지에 대한 칼빈의 견해를 공격했고, 그는 자유의지에 관하여, 1543년,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관하여, 1552년으로 응답했는데, 이는 내가 들어본 선거에 대한 거의 모든 현대적 반대에 답하기 때문에 내 평가에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16세기 중반에 그렇게 했습니다.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에 빚을 졌다고 인정했습니다. “내가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온전한 책을 짜내고 싶다면, 나는 독자들에게 그의 언어 외에는 다른 언어가 필요 없다는 것을 쉽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기관, 3, 22, 8. 3권, 22장, 8항. 칼빈이 죽은 후, 제네바 아카데미의 리더십은 그의 후계자인 테오도르 베자에게 넘어갔다. 1519년에서 1605년까지 베자는 칼빈의 신학을 받아들였지만 다른 신학적 방법을 추구했다. 그는 루터와 칼빈 시대를 따른 프로테스탄트 스콜라주의의 지도자였으며, 이 운동은 권위 있는 개혁가들보다 철학적 신학을 더 강조했다.

베자의 신학 체계는 칼빈의 신학 체계보다 더 완전하고 강했다. 젊은 네덜란드 목회자 후보인 야콥 아르미니우스는 16세기 말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이 강력한 칼빈주의를 배웠다. 아르미니우스와 시노드, 교회 협의회, 교회 회의, 총회는 Doort , Doort , 네덜란드 도시 Doortrek 의 줄임말로 좋은 단어이다 .

Jacob Arminius(1550~1609)는 제네바에서 Theodore Beza 밑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와 네덜란드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위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는 성경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목사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후에 그는 라이덴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고, 그곳에서 가르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또한 강력한 칼빈주의자인 동료 Franciscus Gomarus (1563~1642)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르미니우스의 구원론을 그의 구원 교리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논쟁을 벌였고, 그런 다음 Gomarus는 공식적으로 아르미니우스가 당시 벨직 신앙고백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었던 네덜란드 교회의 교리적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아르미니우스는 자신의 견해를 체계적으로 옹호하는 선언서인 감정 선언을 썼습니다. 이 모든 논쟁의 끝에서, 이 역사적 왕복 운동과 논쟁은 도르트 교리, 즉 신학적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개혁 교회, 개혁 전통의 교회는 스코틀랜드에서 유래하여 웨스트민스터 표준, 더 크고 짧은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사용하는 장로교회와 대조적으로, 개혁 교회, 헝가리 개혁 교회, 남아프리카 개혁 교회 등 모든 곳에서 이와 같은 세 가지 형태의 일치를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벨직 신앙고백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외에도 도르트의 교리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아르미니우스 시대에는 도르트 정경이 없었습니다. 그의 항의가 이어졌고, 그의 제자들의 항의가 도르트 정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아르미니우스 자신은 교회의 교리적 진술을 형식적 상징에 추가하려는 움직임에 항의했습니다.

우리는 벨직 신앙고백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칼빈주의자들은 전반적으로 그와 의견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도르트 정경의 세부 사항은 벨직 신앙고백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없었지만 개요는 확실히 그 방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르미니우스는 그의 전 스승인 바에즈의 체계적 신학 접근 방식을 따랐지만 구원의 계획에 관해서는 다른 길을 만들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예정론이나 영원한 안전에 대한 다른 견해에 대한 책을 읽고 두 가지 다른 장과 관점을 이해하게 되어 놀랐습니다. 개혁된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웨슬리안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개혁된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말했습니다. 모순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았습니다. 훨씬 후에 발전한 웨슬리안 아르미니우스주의는 물론 존 웨슬리에게서 나왔습니다. 개혁된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아르미니우스와 아르미니우스파의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말하며 ,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입니다.

네덜란드 교회가 개혁되었고, 그래서 아르미니우스는 교령과 같은 것을 고수했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인용이 아니라면 암시적으로 최근의 웨슬리안 아르미니우스 신학 서적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조상인 야곱 아르미니우스를 찬양하지만, 그는 교령을 고수했습니다.

웨슬리안은 교령을 고수해야 하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신의 교령으로 왔다 갔다 해야 할까요? 그들은 조금 왔다 갔다 한 다음, 우리는 아르미니우스의 가르침을 매우 존경하지만, 답은 아니요, 우리는 교령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글썄요, 아르미니우스는 믿었습니다. 네덜란드 교회 전체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웨슬리안 전통은 형벌 대속을 믿지 않지만, 형벌 대속의 관점이 아닌 어떤 형태의 정부 이론과 관점을 믿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아르미니우스는 형벌 대속을 고수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있고, 아르미니우스의 전통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실입니다. 네덜란드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나올지 모르지만, 웨슬리안 아르미니우스주의와 대조적으로 개혁 아르미니우스주의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네덜란드 교회와 그 상속자들의 개혁 칼빈주의와 같지 않습니다. 아르미니우스의 유명한 글은 감정 선언이었습니다.

제가 즐겼던 Carl Bangs가 쓴 Arminius의 전기에서 그는 Arminius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우호적이며, 그의 견해를 가능한 한 최상의 방식으로 제시하지만, 때때로 그가 솔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는 정직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는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는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Bangs는 Arminius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다고 말한 것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각주에서 솔직히 말해서, Arminius가 여기서 직설적이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대한 그의 견해가 이전에 믿었던 사람이 믿는 것을 멈추고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계속 믿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르미니우스가 고메루스에게 잘 대우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며, 그는 더 강한 칼빈주의 형제들의 학대로 인해 일찍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르미니우스는 칼빈의 더 성경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라 개혁된 스콜라주의인 그의 전 스승 베자의 접근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게 특히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신학은 발전하고, 특정 전통의 두 번째 세대가 신앙에 대한 아버지의 견해를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말이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칼빈에 반하여, 아르미니우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예견한 모든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예견, 즉 예지, 즉 예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한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견하고, 예지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모든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구원에 대한 선택이 하나님의 예지, 예지하는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 그것에 의존하고, 그것에 의해 조건지어짐을 의미합니다. 아르미니우스는 죄인들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빈과 동의했습니다. 그것은 아르미니우스의 신학과 반펠라기우스적 종류의 많은 아르미니우스 신학 사이에 차이가 있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르미니우스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행적이고 선행적인 은혜를 주신다고 가정함으로써 영적 무능을 개선하려고 시도했습니다. “ 구원에 충분한 은혜는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며, 그들이 원하면 믿거나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빈은 선행적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으며 효과적이며 효과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아르미니우스에게는 그것은 보편적이었고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는 웨슬리가 아르미니우스 체계주의의 핵심인 보편적 선제적 은혜라는 개념을 대중적으로 설명하고 출판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칼빈과 베자를 따라 아르미니우스는 신의 예지를 확인했지만, 그것이 인과적이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견해와 달랐습니다.

“ 어떤 일은 미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의 사적 논쟁 28. 14, 제임스 니콜스 번역. 아르미니우스에 따르면 구원의 결정적 요소는 신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본래 타락하여 선을 선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선행적인 은혜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믿음을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이 의지만 있다면 말입니다. 아르미니우스에 따르면, 구원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죄인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미리 보고, 그 미리 아는 것에 따라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네덜란드 개혁 성직자들 사이에서 성장했고, 아르미니우스가 죽은 지 몇 년 후에 영향력 있는 소수파가 생겨났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Remonstrants 또는 Protest라고 불리는 체계적인 견해 방어를 작성했고, 시위대 자체는 Remonstrants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개신교인이라는 단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여기서는 종교 개혁과는 다른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그들의 항의는 레몬스트란트 (Remonstrants)라고 불렸고, 이러한 견해를 퍼뜨린 사람들은 레몬스트란트 (Remonstrants)라고 불렸습니다.

레몬스트란트 (Remonstrants)는 레몬스트란트 (Remonstrance)를 만들었습니다. 레몬스트란트 (Remonstrants)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교리의 다섯 가지 요점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들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부 선거입니다. 두 번째는 보편적 속죄입니다. 세 번째는 전적 타락/예방적 은혜입니다. 네 번째는 저항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는 조건부 인내입니다. 사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독단적이지 않았지만,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아르미니우스의 5가지 요점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필요합니다. 조건부 선거는 하나님이 구원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선거자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는 구원을 위해 사람들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아르미니우스파는 이 선택을 조건부, 의존적, 예견된 인간의 믿음이나 그 부족에 따라 만들었습니다. 조건부 선택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믿음에 대한 예지에 따라 구원을 선택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서 1장, 로마서 8장, 로마서 9장의 위대한 선거 구절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의 선견지명, 그의 예지력,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으로 무엇을 할지 미리 알고 계심에 따라 선택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가 그들이 믿을 것이라고 예견한다면 , 그는 그들을 선택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보편적 속죄는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효과적인 속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한 속죄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로, 모든 사람이 자유 의지를 행사하고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구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구원을 위해 남자와 여자, 소년과 소녀를 실제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속죄라고 부릅니다.

전적 타락은 아담의 타락과 인간의 죄로 인해 사람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어떤 사람들은 아르미니우스주의의 5가지 요점을 부정확하게 묘사하여, 그들이 사람들이 우물 속으로 떨어진 것은 타락하지 않는다고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네덜란드 교회의 기후가 개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와 벨기에 신앙고백에 따르면,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 파와 개혁파는 전적인 무능력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적인 무능력은 인간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형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예방적 은혜에 의해 개선됩니다.

보편적.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받습니다. 예방적 은혜.

구원에 앞서 온다. 원죄의 효과를 한 영역, 즉 의지에서 무효화한다. 묵인 의지는 이제 은혜로 자유로워져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택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한다.

보편적 선제적 은혜는 아담의 원죄가 인간의 의지에 미친 영향을 무효화하여 죄인들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로운 능력을 갖게 합니다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혁 신학 교과서는 무능력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웨슬리안 신학 교과서는 은혜로운 능력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타고난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제 신학적 방법은 이러한 진술이 성경 해석의 기반 위에서 시험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항할 수 있는 은혜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적으로 너무나 명백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들은 길을 잃습니다. 그들은 죄로 멸망합니다. 그러니 은혜는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맞죠? 아르미니우스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개혁파는 그들의 반대자들이 사물을 다소 단순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거부하고 멸망하지만, 택함받은 자들 중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그들을 붙잡으시고 틀림없이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조건부 인내는 아르미니우스파가 신자들이 은혜에서 떨어져 다시 잃어버릴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성경에 강력한 진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28과 30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양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손 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 아버지와 나는 양을 보존하는 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을 고소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의해 균형을 이룬 진술을 보았는데, 그 진술은 사람들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가르침을 어떻게 함께 조합할지는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존에 대한 성경의 강력한 진술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강력한 배교 본문과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합니다. 여기 개혁된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웨슬리안 아르미니우스주의와 다른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웨슬리는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구약 전체에 대한 노트와 신약 전체에 대한 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이것을 난제로 제시하거나 더 연구해야 할 주제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했듯이 신학은 발전했고, 아르미니우스의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죄송합니다, 웨슬리의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되었고, 그는 물음표를 제거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의 평가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건부 인내는 아르미니우스 파가 불확실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은혜에서 떨어져 다시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그들의 개혁 분위기의 일부였고, 저는 그 사실을 존중합니다. 널리 알려진 사실은 아니지만,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이 다섯 가지 요점은 역사적으로 칼빈주의의 다섯 가지 요점보다 먼저 공포되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네. 칼빈주의의 5가지 요점이 그 전에 발표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그 전에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니요,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아르미니우스 파는 개혁주의 가르침에 반발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떤 종류의 공식적인 교리적 진술에도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세 가지 형태의 통일은 단지 두 가지 형태의 통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논쟁에서 도르트와 정경, 가르침, 공식 선언이 나왔는데, 그것은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문제를 진술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항의 조항은 칼빈주의 다수파를 움직여 1618년 도르트렉(Dortrek) 또는 도르트(Dort)에서 교회 시노드, 즉 총회를 소집하여 대응하게 했습니다. 도르트 시노드는 네덜란드 교회의 총회였습니다. 시노드는 교회 법정이었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탐색 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 법정이었습니다.

아르미니우스 파의 견해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 소집된 심의적이고 사법적인 기관이었습니다. 시노드가 심의하면서, 그것은 항의서의 5가지 요점에 대한 요점별 응답인 도르트 시노드의 5가지 요점을 발표했습니다. 5가지 교리는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약어가 있습니다. TULIP, T는 전적 타락, U는 무조건적 선택, L은 제한된 속죄, I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P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사실, 그 약어가 실제로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어로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네덜란드어로 썼고, 아마도 라틴어와 네덜란드어로 썼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문제죠.

내 교회 역사가 친구들은 내가 아는 한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분명히 도르트와 칼빈주의자들의 아이디어입니다. 이 다섯 가지 요점에 대한 요약이 필요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죄인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아르미니우스파의 의견에 동의했지만, 칼빈주의자들은 보편적이고 선행적인 은혜라는 아르미니우스파의 개념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전적 타락에 동의했는데,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가톨릭 신학에 반하여, 전적 타락은 죄인들이 가능한 한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상에서의 인간 생활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개혁 신학은 공통 은혜라고 불리는 것이 정부와 사회, 경찰력 등의 구조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함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르미니우스파와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는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인간의 타락 효과에 대해서요. 다만 마음은 타락의 효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웠습니다. 틀렸다고 개혁자들은 말했고, 도르디안 칼빈주의자들은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틀렸어. 바울은 죄가 인간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맏소사.

로마서 1장과 다른 많은 곳에서. 인간 전체가 죄가 있습니다. 전적 타락은 사람들이 가능한 한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능력에 있는 인간 전체가 죄의 영향을 받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보편적인 선함적 은혜에 대한 이 개념은 신학적 걸작이기는 하지만 성경적 허구입니다. 은혜로운 능력은 없고 무능력만 있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은 선택의 근거가 인간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빈주의의 5가지 요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런 제목에 신음합니다. 전적 타락은 모든 사람이 아동 성추행자처럼 들립니다. 무조건적 선택은 선택에 운율이나 이유가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물론, 칼빈주의의 5가지 요점은 아르미니우스주의 요점에 대한 반론으로 읽혀야 합니다. 선택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 안에 운율이나 이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르미니우스주의의 관점에 반하여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제 이해에 따르면 선택은 하나님의 성품, 특히 그의 사랑과 그의 뜻에 의해 조건지어집니다.

그것을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 생각에 디모데후서 1:9은 이것에 대한 가장 간략한 요약입니다. 에베소서 1장, 로마서 8장, 로마서 9장이 가장 좋은 곳이지만, 디모데후서 1:9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목적과 은혜 때문이니,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영원한 시대 전에 주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ESV를 좋아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그의 뜻이고 그의 은혜, 그것이 그의 사랑이다.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 뒤로 미룬다면, 왜 나는 구원받는가? 나는 복음을 믿었다.

그게 궁극적인 진술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제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저는 구원받기 위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게 궁극적인 진술인가요? 저는 하나를 건너뛰었습니다. 저는 복음을 믿습니다. 그게 궁극적인 진술인가요? 아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궁극적인가요? 아니요. 예수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궁극적인 진술인가요? 아니요. 신비롭게도 궁극적인 진술은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네 가지 모두 사실입니다.

제한적이거나 확실하거나 특정한 속죄는 보편적인 혜택이 십자가에서 흘러나오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택함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한된 속죄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무언가가 부족한 것처럼 들립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헐떡거렸으므로 다시 헐떡거리지 않겠지만, 어머, 어쩌면 어머니가 적절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속죄는 어떤 면에서 보편적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보편적인 무상 제공과 모든 사람에게 오는 그로부터 오는 혜택을 근거로 하지만, 구원, 하나님의 구원 의도는 그의 백성, 즉 아버지가 택하신 자들, 아들이 구속하신 자들, 그리고 성령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일하시는 자들에게만 국한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구원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아, 당신은 사셨습니다. 사실 그리스어로는 *bl ike* , 그것은 부분적 소유격으로, 당신은 모든 족속과 언어의 사람들과 민족에게서 사셨습니다.

모든 번역은 일부, 또는 사람들, 또는 신자들, 또는 인간들을 말합니다. 거기에 단어를 하나 추가해야 합니다. 즉, 성경적으로 세계를 대표하는 모든 부족, 언어, 사람들, 그리고 국가는 그가 구매한 합계가 부분 집합인 큰 원입니다.

그것은 잠재적이거나 가정적이거나 보편적인 속죄가 아닙니다. 오, 그것은 그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와 방언, 모든 장소에서 일부를 구입했다는 의미에서 보편적이지만,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 그것들을 구입했습니다. 내가 편견이 있는 것처럼 들리나요? 그렇습니다.

제한적이거나 확실하거나 특정한 속죄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가능하게 하거나 가정적으로 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죄인들이 인용 부호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성공적으로 저항하여 죽을 때까지 저항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자 중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남자를 얻고, 그의 여자를 얻고, 우리가 그의 아들을 믿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끈기 있게 버티시는 하늘의 거룩한 사냥개입니다.

물론 그의 은혜는 죄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저항을 받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 중 아무도 죽음까지 그의 사랑과 사랑의 호소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들을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요한복음 6장). 아버지가 그들을 아들에게 이끄십니다(요한복음 6장). 그들은 같은 장에서 아들에게 와서 그를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인내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인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듯이, 참된 신자들은 완벽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의 부사 몇 가지가 부족합니다.

완벽하고 일관되게는 아니지만, 그들은 계속 유지하며,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서 먼지를 털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유지한다. 그들은 떨어질 수 있다, 내가 한 말은 이렇다, 그들은 떨어질 수 있다, 어거스틴이 말했다, 하지만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부분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끝까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목사로서, 심지어 목사들을 훈련하는 교수로서도 신학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고, 우리는 항상 사물을 단순한 흑백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회색이 있고, 목사들은 성경의 진리를 삶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많은 지혜와 성령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 진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것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인내는 또한 신자들이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다섯 가지 교리를 칼빈주의의 다섯 가지 요점으로 인식합니다. 이름과는 달리, 이 다섯 가지 요점은 16세기의 존 칼빈이 아니라 17세기 네덜란드의 도르트 시노드에서 나왔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대표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것은 칼빈주의의 완전한 표현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칼빈주의는 다섯 가지 요점 외에도 너무 많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들을 개혁 신앙의 요점과 본질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도르트 의 다섯 가지 교리는 아르메니아의 항의에 대한 네덜란드 칼빈주의자의 반박을 나타냅니다. 당신이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견해의 본질을 상대방의 당신의 입장에 대한 공격에 대한 반박이라고 부르는 것이 공평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당신의 프레젠테이션의 일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의 견해를 긍정적인 빛으로 표현할 권리가 있고, 그 점에서 개혁 신앙은 칼빈주의의 5가지 요점보다 훨씬 더 큼니다. 네덜란드 개혁 교회는 그것들을 공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어거스틴과 칼빈의 예정론에 대한 견해를 받아들였음을 재확인했고, 아르미니우스의 개혁 신앙고백에 대한 해석은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르트 시노드의 정경은 벨직 신앙고백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추가되어 세 가지 형태의 일치로 구성했습니다. 네덜란드의 개혁 교회와 전 세계의 개혁 교회의 교리적 기준. 우리는 찰스 해든 스펀전과 하이퍼리스트 , 그의 말씀을 살펴보고 역사적 관점에 대한 정찰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찰스 해든 스펀전(Charles Haddon Spurgeon, 1834~1892)은 기본적으로 칼빈주의를 지지하는 시골 회중교회에서 자랐으며, 뛰어난 설교 능력을 보였다. 20세에 그는 특정 침례교인으로 성임되었고, 몇 년 후 런던의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극단적인 칼빈주의 형태인 하이퍼리즘(hyperism) 과 논쟁에 휘말렸다 .

스펀전은 독학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신학대학인 신학대학에 가려고 했지만, 신의 섭리의 변덕으로 그는 한 방에 갔고 학장은 다른 방에 갔으며, 두 방이 결코 함께 모이지 않았습니다 . 그는 주님께서 그가 학교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고 스스로 가르쳤습니다.

스스로 공부한 천재라는 사실이 그를 그렇게 크게 다치게 하지는 않았고, 놀랍게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그의 설교는 여전히 존경을 받고 인용되고 있습니다. 제 목사님도 적어도 다른 모든 설교에서 그의 설교를 인용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훌륭한 성경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공을 강조하고, 부전공을 덜 강조했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부터 시작해서요. 세상에. 그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런던의 목사들은 칼빈주의자들이었고, 대개 칼빈주의 침례교도들이었으며, 그들은 그의 아버지만큼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르친 것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칼빈주의였고, 어린 꼬마로서 그는 악의 없이 그들을 저항했습니다.

교회 신문이 그 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토론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교단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는 존경심을 가지고 그것을 했습니다. 그는 확고하게 그것을 했고 결국 그는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기 다섯 가지, 주요 요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퍼리즘 에는 다섯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택함받은 자를 사랑하시지, 택함받지 않은 자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보편적인 복음 부름은 없고, 오직 택함받은 자에게만 효과적인 부름이 있습니다. 도르트가 말했듯이, 복음을 무차별적으로 전파하지 마십시오. 도르트의 교리는 복음을 무차별적으로 전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난잡하게. 어때요? 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당신은 택함받은 자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인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바지 뒤에서 셔츠를 꺼내 택함받은 자들을 나타내는 E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차별 없이 전파하고,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십니다. 성령은 말씀의 전파를 통해 이것을 행하십니다. 불신은 죄가 아닙니다.

헐. 미안, 헐떡거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 불신은 죄가 아니야. 왜냐하면 선택받지 못한 자는 믿을 수 없으니까.

성경은 불신을 죄로 여긴다. 이 칼빈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견해는 기독교가 아니다. 슬프게도, 나는 이와 같은 사업을 확인하는 극단적 칼빈주의 웹사이트를 보았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과 그 강력한 진술, 이 경우 칼빈주의 구원론, 구원에 대한 개혁 교리에 관한 진술로 시작한 다음 , 기도의 효능,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 복음을 널리 널리 퍼뜨리는 것 등을 가르치는 다른 성경적 진술을 높이고 최소화합니다. 성경을 그 자체에 대항하여 사용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신학적 방법입니다. 이 칼빈주의 체계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완전히 압도하는 신성한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펀전이 그것을 하이퍼리즘이라고 부르고 그 지지자들을 하이퍼리스트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

이때부터 하이퍼 칼빈주의로 알려지게 되었고, 불행히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이퍼리스트 지도자인 제임스 웰스는 스펀전에 대한 맹렬한 비난을 썼는데, 특히 침례교 잡지에 실렸습니다. 스펀전은 설교를 제외하고는 이런 공격에 대응하지 않아 많은 신자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그의 지혜, 일류의 설교 능력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하지 않는 그의 지혜에 놀랐습니다. 그는 그들의 상대였지만, 동료 신자들을 공개적으로 모독하는 데 굴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스펀전은 첫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향한 주권적인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 대한 일반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의 백성에 대한 특별한 주권적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둘째, 하이퍼리스트의 반대 주장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부르심은 보편적입니다. 스펀전은 하이퍼리스트들이 의지에 복종하기에는 너무 정통하다고 말했습니다 .

그들은 먼저 누가 만찬에 오도록 임명되었는지 이해하고 싶어하고, 그런 다음 그들을 초대할 것입니다. 하하 , 주인은 그들을 큰길과 시골길로 보내어 모든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말했듯이,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았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그 반대는 아니야. 많은 사람이 선택되었으니 우리만 있고, 소수가 선택되었으니 우리는 소수만 초대해. 아니, 우리는 신이 아니야.

우리는 그의 역할을 말지 않습니다. 맏소사. 셋째, 그리스도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에게 오라고 초대합니다.

이것은 그를 거부하는 자들이 스스로에게 정죄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펀전의 가르침은 독창적이지 않았지만, 대신 오거스틴과 칼빈이 가르친 예정론에 대한 역사적 견해를 재진술한 것이었고,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아름답게 대중화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스펀전의 기독교적 간증과 말씀의 설교자로서의 탁월함 때문에, 전통적인 칼빈주의는 결국 영국의 특정 침례교도들 사이에서 하이퍼리즘 보다 더 폭넓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사실, 하이퍼리스트 들은 뿌리 깊은 소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말에는 칼빈주의가 영국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당도 더

이상 다른 당에 관심이 없었고, 둘 다 자신들을 앞지르는 새로운 제3당, 즉 선거를 포함한 정통 교리에 거의 관심이 없는 신학적 자유주의에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다음 강의에서 스펀전의 사상에 대한 간략한 리뷰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다음 체계적인 공식화, 즉 체계적인 선택 교리 신학의 관점에서 선택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로버트 피터슨 박사와 그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5, 선택, 역사적 정찰입니다.